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향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1962년 5월 16일 창간 |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제819호

군 원로 적극 나서 한일 갈등문제 해소해야…

김진호 회장, 모리모토 전 일본 방위상 만나 갈등해소 방안 논의

김진호 회장은 9월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을 만나 "한 · 일 양국의 정치 · 역사적 문제가 양국의 군사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한일 군사교류 협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회장은 9월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을 만나 최근 한 · 일 갈등문제에 대한 조기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두 원로들은 한 · 일 양국의 군 원로들이 나서 점점 깊어지고 있는 한 · 일 갈등문제를 풀어 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해법들을 주고받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호 회장은 "한 · 일 양국의 정치 · 역사적 문제가 양국의 군사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한일 군사교류 협력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군 원로들이 적극 나서 한 · 일 갈등문제를 조기에 해소하자"고 덧붙혔다.

또 모리모토 전 일본방위상이 지난 2월 초계기 사건으로 양국의 군사적인 갈등이 고조되었을 때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듯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금년 11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 지향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양국 군 원로들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양국 군 원로들이 만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심포지움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가 어려울수록 그동안 양국의 군 원로들이 쌓아온 교류협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해결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국민여론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과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이번 만남이 금년 들어 세 번째 만남이며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난 2월 초계기 사건으로 한일 군사 갈등이 일어나자 정부와 현역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군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는 김진호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한 · 일 향군단체 군 원로들의 만남을 주도적으로 주선한 바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정통한 인물이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2012년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후 현재 동경소재 대학총장으로 재직하며 안보단체 강연과 TV 출연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 재향군인의날 제정과 배경 ····· 3면
안보정세 보고 / 동북아 정세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 12면

'9 · 19군사합의 왜곡, 동의 못해
향군 입장발표

일부 예비역단체가 남북군사당국간 합의한 "9.19군사합의"를 '이적성 합의' 라며 전 · 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 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향군은 "더 이상 9.19군사합의를 왜곡평가,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향군은 9월20일 '9.19 남북군사합의' 1년을 맞이한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한 향군의 입장을 통해 "안보문제를 이념의 잣대나 진영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전 ·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이적행위 고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다면 국방부, 향군, 예비역 단체와의 3자 토론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5월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은 '9.19군사합의로 인해 전투대비태세는 전혀 저하되지 않았고, 연합준비태세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 고 평가했다"면서, "9.19군사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 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과 현 연합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도 이적죄로 단죄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라는 예비역 단체의 주장은 북한에 대해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을 다시 재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이적행위"라며 "군 원로들이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군 후배들을 크게 격려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이적 집단' 으로 매도되는 것은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불명예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서 전문 2면〉

경축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10월8일은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지난 67년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은
김진호 회장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 · 최대 안보단체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기념행사: 1부-기념식/향군회관 회의실 2부-오찬행사/향군회관 임직원 식당 3부-기념음악회/KBS별관 공개 홀

‘9.19 남북군사합의’ 1년, 현 안보상황에 대한 향군의 입장

안보문제, 진영논리로 평가… 국론 분열만 초래

남북군사당국간 합의한 “9.19군사합의” 1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9.19군사합의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오던 예비역 단체가 이 군사합의서가 ‘이적성 합의’라며 전 · 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체는 9.19군사합의서가 ▲적에게는 기습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아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합의서를 체결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 합의서 이행에 여념이 없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이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9.19군사합의 이후 일부 예비역단체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전 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을 만나 한 · 미간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비행금지구역설정 및 서해완충구역설정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장군 급으로 구성된 향군 회장단이 동해안 전방사단으로부터 중부지역 군단, 해병2사단, 공군작전사령부 및 2함대사령부를 방문, 현지 지휘관들과 심층 깊은 전술토의를 통해 일부 보완사항을 조치한다면 9.19군사합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오히려 쌍방 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작전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9.19군사합의를 지지해 왔다.

국방부도 ‘9.19군사합의가 북한의 기습도발 능력과 핵능력만 강화시키고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이라고 했으며, 우리군은 9.19군사합의 이전과 이후 시기에 관계없이 계획된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한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상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향군은 9.19 군사합의의 핵심내용인 “남북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는 조항을 유념했다.

1953년 휴전이래 북한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 · 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시도때도 없이 3000여회의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우리 군은 한 번도 휴전선 북방의 북한군을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격계획이 없다. 따라서 이 9.19군사 합의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나 다름없다.

그러면 북한이 왜 포기했겠는가?

이젠 군사적 도발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대남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일부 예비역단체는 오히려 우리 군이 무장해제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부, 국방부를 매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천지역 포격 사건 등 대남군사도발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 · 북 · 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만을 가지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5월 현 연합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은 “9.19군사합의로 인해 전투 대비태세는 전혀 저하되지 않았고, 연합준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9.19군사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 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 현 연합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도 이적죄로 단죄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창군이래 북한군의 6.25기습남침을 물리 치고 시도때도 없이 대남 군사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과거 군의 정치개입, 일부반란사건, 6.25당시의 국민방위군 비리 등의 오역의 역사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우리 군이 그것도 군 선배들에 의해 ‘이적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불명예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포기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라는 예비역단체의 주장은 북한 보고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을 다시 재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야말로 이적행위가 아닌가?

9.19군사합의를 이적행위로 매도하며 전 · 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논리로 9.19합의를 왜곡 평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문제를 이념의 잣대나 진영논리로 정책을 평가하는 이기주의가 오늘의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변화를 냉정히 분석하여 정부의 대북군사전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군 원로들이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도발을 일삼는 집단과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군 후배들을 크게 격려함이 마땅할 진데 오히려 ‘이적집단’으로 매도하고 더 나아가 이적죄로 고발하는 현실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군은 최근 일부 예비역 단체의 전 · 현직 국방장관 이적죄고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9.19군사합의를 서명한 전직 국방장관과 이를 이행하고 있는 현직 장관을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로 더 이상 9.19군사합의를 왜곡, 평가,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안보문제를 이념의 잣대나 진영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특정정권의 군대가 아니다. 오직 유구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국민의 군대임을 우리 모두 잊어선 안 된다. 만약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다면 국방부, 향군, 예비역 단체와의 3자 토론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더 이상 예비역 · 현역 간의 불화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기 바란다.

‘한미동맹 절실히 필요한 때’ 같이 갑시다

샤프 주한미군전우회장 한국문화원 행사 참석, 강조

한국문화원 행사에 참석한 김경구 미동부 향군회장, 해군사관학교 한인 생도.

김진호 회장, 화환 보내 축하

주한미군전우회(회장 월터 샤프)가 9월20일 조윤제 주미대사, 표세우 국방무관, 김경구 미동부 향군회장, 해군사관학교 한인 생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국문화원 행사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호 회장도 이날 행사에 화환을 보내 축하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 출신인 월터 샤프 회장은 행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면서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김진호 회장의 화환에 대해 감사인사를 표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2017년 5월 워싱턴에서 창립됐으며 본회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화적 가치에 군 문화 · 예술 접목 ‘명품 엑스포’ 확신

김진호 회장, 인터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년 앞두고

김진호 회장(‘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이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 1년을 앞두고 국방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 도시 계룡에서 열릴 이번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공동위원장이자 민간위원장으로서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회장은 6 · 25전쟁 발발 70주년인 2020년 9월18일부터 10월4일까지 17일 동안 ‘K-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국방의 수도인 충청남도 계룡시에서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가 전쟁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이자 6 · 25전쟁 참전 · 지원국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또 “세계 최초로 60여개국 군을 초청, 군 문화를 소재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민간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엑스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평화적 가치에 군 문화와 예술적 요소를 접목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축제이자 명품 엑스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흘리는 우리의 땀이 세계 최초 군 문화 엑스포의 역사에 기록될 소중한 첫발이기를 기원한다”며 “세계평화의 기폭제가 될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주인공인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⑪

재향군인의 날 제정 배경과 변천 과정

10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이다. 또 향군 창설기념일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원래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일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창설되었다. 그러나 10월 8일이 '재향군인의 날'이 된 것은 우역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향군은 '재향군인의 날'이 제정되기 이전 까지는 2월 1일을 창설기념일로 하고 자체 행사를 가져왔다.

창설 10년 뒤인 1962년부터 향군의 활동무대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향했고, 세계재향군인연맹(WVF, World Veterans Federation)에 가입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향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재향군인연맹은 65개국 165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우리 향군은 1962년 WVF가맹국이 되면서 그 해 6월 한 달을 '세계재향군인의 달'로 정하고 서울 시청광장에서 기념식을 갖는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치루었다. 그 이듬해인 1963년 6월 8일에는 시청광장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3부요인, 3군 참모총장과 UN군사령관 까지 참석하고 전국 향군 회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안보행사와 지역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세계재향군인연맹 가입 5월8일 향군의 날로 제정

이렇게 2년에 걸쳐 대규모로 '세계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향군은 자체적으로 '재향군인의 날'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창설기념일과는 별개로 '재향군인의 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기념일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향군은 세계재향군인연맹에 가입한 날인 5월 8일로 정해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1965년 6월 8일 제49차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제정키로 의결하고, 그날을 법정기념일로 공포하였다.

따라서 향군은 사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1967년부터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가져왔으며, 본회 창립을 고려하여 제16회로 소급적용하였다. 이날에 즈음하여 체신부에서는 기념우표 100만장을 발행하고 전매청에서는 기념담배로 '신탄진' 100만 갑을 제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창경궁 야외특설 무대에서 향군회원과 가족 일반시민 등 2만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공연이 있었으며 저녁에는 대통령이 주관하고 3부요인, 주한외교사절, 예비역 장성, 언론 및 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연이 성대하게 열리기도 했다.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 명명 10월8일로 변경, 오늘에 이르러

향군은 그 이후 2000년 까지 매년 5월 8일 기념행사를 해오다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한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각종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번기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과 중복되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향군이 이를 다시 발전과제로 채택하여 검토한 결과 UN의 날인 10월 24일로 변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군은 이를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 검토과정에서 UN의 날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검토하여 1953년 국방부로부터 '대한민국제대장병보도회'로 명칭변경이 승인되었던 10월 8일로 할 것을 다시 건의하였다. 이 건의 안은 2002년 6월 11일 국무회에서 가결되고 2002년 6월 19일 대통령령 제17628호로 변경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몇 차례의 변천과정이 있었지만 10월 8일은 우리 '재향군인의 날'로서 국민들로부터 축하 받아야하고, 우리 스스로 자축하며 의미 있게 보내야한다. 재향군인의 날 하루만큼은 향군에 몸담고 있는 모든 조직원과 1천만 회원들이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 실패시 생존권 위해 핵무장 추진해야

향군 성명 발표 … 핵전쟁 억제 최선 방책, 상호 핵확증파괴 전략

향군은 9월9일 '최근 한반도 핵무장론 거론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현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실패할 경우 생존권 위해 핵무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향군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라"고 요구하며 "핵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상호핵확증파괴 전략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필요시 한반도 핵무장 공론화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 등 국민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대국민 안보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한은 올 들어 9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최근에는 우리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를 막말로 비난하며 국민의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조속히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미시간대학 강연에서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핵무장 검토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한 바 있고 최근 미국 국방대학교도 한·미, 미·일 나토식 '핵 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장기화되면서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안보단신

IAEA, 북 NPT 복귀 촉구 결의 채택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9월2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는 북한이 IAEA와 맺은 NPT와 IAEA의 세이프가드(조사·검사 등 조치) 협정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북한이 핵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CVID)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IAEA는 이번 정기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영변의 5MW 원자로가 연료를 제거하고 새로운 연료를 주입할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징후가 포착됐다며 이는 관련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 "CTBT, 국제 핵 군축·비확산에 중요"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11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촉진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9월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조약 발효요건 국 8개국의 조속한 서명·비준을 촉구하고 우리나라의 CTBT의 조기발효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기여를 소개했다. 1996년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은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9월 현재 184개국 서명과 168개국이 비준했다.

국방단신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다. 지난 2017년부터 각 군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군의 날 기념식 장소를 정해 온 군은 올해는 우리나라 영공방어의 핵심 작전기지인 대구 공군기지를 개최장소로 정했다. 2017년 69주년 행사는 해군 2함대사령부, 작년 70주년 행사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각각 개최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국군'을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기념식은 각군 기수단과 사관생도가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례, 훈·표창 수여, 기념사, 기념영상, 공중전력 기동, 블랙이글 축하비행 순서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을 대표하는 핵심 전력과 공중자산을 현시하고 소개하면서 첨단 과학군으로 '혁신하는 국군'의 위용을 드러낼 계획"이라며 "어떠한 전방위적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국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전시성 시범 등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최

국방부와 '서울 ADEX 2019 공동운영본부'는 항공우주 분야와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9년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2019')"를 10월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에서 총 34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한다.

이번 '서울 ADEX 2019'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특성화 된 전시회로 신소재, 전자제어, 인공센서, 무선통신 등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국내외 최신 항공기와 우주장비,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전시를 통해 국가 기술수준과 산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에 T-50계열 기종, 수리온, 전차, 장갑차 등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의 첫 시범비행과 공군 차기 전투기(KF-X) 1:1 실물 모형을 국민에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공군이 창군 70주년을 맞아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공군의 발전상과 조국 영공수호 의지를 형상화한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이번 기념우표는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는 전투조종사와 비상하는 F-35A 전투기, 하늘에 태극무늬를 수놓고 있는 블랙이글스 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우표 왼쪽 하단에는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문구를 넣고 오른쪽 위에는 로고를 새겼다.

우표 16장으로 이뤄진 전지에는 상단에 KC-330 공중급유기와 전투기들의 임무수행 모습이, 좌우에는 올해 2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공군 의복 캐릭터가 새겨졌다.

군이 기념우표를 발행한 것은 2008년 건군 60주년 기념우표 이후 11년 만이며, 공군 차원에서는 1969년 공군 창군 제20주년 기념우표 발행 이후 50년 만이다.

육군, 강한신병 육성 위해 5주 교육 최적화

육군이 신병교육 기간을 현행과 같이 5주로 유지한 가운데 교육체계는 최적화하기로 했다. 육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육군훈련소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4주 교육훈련 모델을 시험 적용했으며 야전부대 전투원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전투기술 수준을 분석한 결과 4주 모델보다 기존의 5주 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군은 5주 교육 후반부에 훈련성과를 집중 배가시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종합훈련 방안을 적용하고, 20km 철야행군, 개인화기 사격, 전투체력 단련 등 전장에서 필요한 전투기술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육군은 이번에 정립한 신병교육 체계를 8월 말부터 육군훈련소와 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시험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 복무기간 단축 등 교육훈련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신병교육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강한 전사' 육성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10월 2일 계룡대 일대서 개최

아미타이거 4.0 시범, DMZ 특별 기획전 등다양한 볼거리 제공

육군이 주최하는 전군 최대 규모의 축제, '지상군 페스티벌'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이라는 주제로 전시, 체험, 공연 등 4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아미타이거(Army TIGER, 기동화·네트워크화·실시간 초연결·초지능화 기술로 강화된 육군의 미래 전투체계) 4.0과 연계한 미래전투체계를 구체화하여 시범을 보이고 DMZ 특별 기획전을 전시하는 등 첨단과학군으로 도약하며 미래를 열어가고 강한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육군의 모습을 선보인다.

주요 테마별 3개의 대형 전시관이 운영되는데 '강한 육군관'에서는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아미타이거 4.0 등 미래 육군의 전투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전시하며 '자랑스러운 육군관'에서는 병영생활관 체험, 3D 기술을 적용한 전투복 계측, 해외 파병부대 소개 등 육군의 발전상과 세계적 위상을 보여준다.

'평화누리관'에서는 지난 4월 전쟁기념관에서 전시된 〈강한 국방이 열어가는 평화의 길〉 DMZ 특별 기획전을 확대 전시한다. 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품전시, 철수 GP 철조망에 '평화기원 리본 달기' 행사 등을 더해 9.19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든든한 대비태세로 평화를 지켜가는 우리 군의 노력과 역할을 국민에게 알린다.

'기동시범장'에서는 강한 육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래 전투상황, 한·미연합특전사의 고공강하·패스트로프, 장비 기동 등의 시범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전투상황 시범은 아미타이거 4.0을 구체화해 드론과 무인차량, 무인로봇 등 미래 육군의 전투체계를 활용한 전투 상황을 생생하게 시연한다. 드론과 무인정찰차량의 정찰정보가 실시간 공유되는 상황에서 타격드론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전요원들이 산악오토바이, 소형전술차량 등 경량화된 기동장비를 활용해 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외줄 도하, 레펠 하강, 장갑차·모터사이클 탑승 등 체험 프로그램과 수색견 '달관이'가 참가하는 군견운용 시범, 군악·의장대 공연, 태권도 시범, 국방TV 위문열차 등 다채로운 공연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www.armyfest.or.kr)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상군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행사기획단(☎042-550-53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육군 5군단, 추석 맞아 마을 환경정화

육군5군단은 9월11일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영평천 일대에서 하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장병들은 태풍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했던 하천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잔해물 처리 및 쓰레기 줍기를 펼치는 등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5군단은 "지역 환경정화 활동에 군단 전 장병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부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군 3함대, 지역아동센터 찾아 봉사

해군3함대 3수리창 장병들이 9월1일 목포 지역 아동 보호와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복지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산들강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개인 특기를 살려 냉·난방기 점검과 정비, 각종 배관과 전선 설치, 시설 내·외부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2012년부터 인연을 맺은 아동보육기관 '소전원'을 찾아 환경정화와 시설물 정비, 생필품 전달, 격려 활동 등을 펼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태풍 '링링' 피해 농가 복구 지원

공군장병들이 13호 태풍 '링링'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찾아 대민봉사활동을 펼쳤다.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장병들은 추석을 앞둔 9월1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일대 과수 농가에서 떨어진 배를 줍고, 부러진 나뭇가지 등을 치우며 태풍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

공군유도탄사령부 사격지원대 장병들도 9월10일 충남 보령시 노천리 일대 농가를 방문, 약 8000㎡ 규모의 논에 쓰러진 벼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며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힘을 보탰다.

해병대2사단 낙도주민 대민봉사

해병대2사단은 8월21일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순회진료와 장수사진 촬영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서검도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마련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장병들은 위생점검, 방역 활동, 순회 진료와 함께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 사진 촬영 봉사를 펼쳤다.

내년 국가보훈처 예산 5조 6,211억원 편성

'추모의 벽' 디자인 설계비 반영, 향후 건립비 지원 예정

2020년 국가보훈처 예산 안이 5조 6,211억 원 편성되어 올해 예산 5조 5,116억 원 대비 1,095억 원(2%)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확대, 보훈의료 · 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독립 호국 민주 관련 10주기 기념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및 수당 4조 3,022억 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은 4조 3,022억 원으로 이는 올해 본예산 4조 2,000억 원 대비 1,022억 원(2.4%) 증가한 편성이다.

또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1~2급 중상이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도 5% 인상한다. 아울러 전몰 · 순직 유족 보상금과 7급 상이자 보상금을 각각 2%와 1.5% 추가 인상하고 6.25제적자녀의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도 2% 인상한다.

의료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 6,949억 원

국가유공자 진료, 의료 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6,949억 원도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6,085억 원을 편성했으며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전, 부산, 광주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188억 원)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대구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쾌적한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14억 원),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26억 원), 대구보훈병원 심혈관센터 및 건강검진실 리모델링(22억 원) 의료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고령 · 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강원권 및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사업(236억 원)을 '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43억 원) 등도 '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립묘지 조성, 정비사업 721억 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721억 원을 편성했다.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이천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에 각각 158억 원, 4억 원을 편성했으며 2023년까지 약 10만기의 안장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6 · 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국립대전현충원 등 10개 국립묘지 정비를 위하여 81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안장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국립묘지 안장자 사후예우 및 방문객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대군인 지원 및 6.25전쟁 70주년 사업 498억 원

2020년 6 · 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21개 사업(150억 원)을 추진하여 국내외 6 · 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한다. 아울러, 유엔참전용사 초청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저소득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지원 사업(850명, 연간 36만원씩)을 통해 국제보훈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730억 원

독립 · 호국 · 민주화 관련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위하여 730억 원을 편성했다.

일제 항쟁기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긴 봉오동 ·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며 2020년 4 · 19혁명 60주년 및 5 · 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로 확대하여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국보훈기념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2020년과 21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세종시에 들어설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을 반영했다. 그리고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표명,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디자인 설계비 등을 반영하고 향후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엔참전국과 국제 교류 협력 강화

국제보훈워크숍 개최, 보훈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제보훈워크숍에 참석한 미국, 케나다 등 4개국 보훈전문가.

유엔참전국과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보훈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15회 국제보훈워크숍이 9월23일부터 5박 6일간 미국, 캐나다 등 4개국 9명 국외 보훈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워크숍은 9월24일 백범김구기념관(컨벤션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시작됐으며 '보훈심사 체계 및 현황'을 주제로 유엔참전국 및 국내 전문가, 군인 및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가보훈처와 뉴질랜드 보훈처가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 후손 '비전캠프' 공동개최 등 상호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협력의향서(Statement of Intent)'에 서명해 의의를 더했다.

25일에는 보훈처 세종청사에서 '보훈대상자 의료 및 취업 교육지원 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행사에 초청된 국외 보훈관계자들은 국립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 등을 방문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국제보훈워크숍'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게 되며, 유엔참전국 보훈 관계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 · 분석하고 정책비전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 · 터키 참전용사 방한, 장진호 전투 행사 참석

DMZ · 임진각 등 안보현장도 방문…'평화의 사도 메달' 받아

미국과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33명과 가족 등 77명이 9월26일부터 5박 6일 간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한 참전용사들은 27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열리는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행사'에 참석한 후 28일에는 비무장지대(DMZ)와 임진각의 안보 현장을 둘러보고 분단 현실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9월30일에는 박삼득 보훈처장과 주한미국대사, 주한터키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만찬에서 '평화의 사도 메달'도 수여받았다.

이번에 방한한 참전용사 중에는 미군 전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밀튼 워커(89), 헨리 쉐이퍼(88) 씨와 흥남철수작전에 참가했던 웨인 스트렁크(86) 씨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장진호전투에서 총에 맞아 한쪽 팔과 다리 등을 잃은 쉐이퍼 씨는 "항상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에 대해 큰 자긍심을 느낀다"며 방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유엔사령부 모범장병 초청행사

유엔사령부 모범장병 초청행사가 9월10일 경기도 평택시 모닝 컴 센터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로버트 B. 에이브람스 유엔미군사령관 등 주요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서울 중랑구 향군, 위령탑 건립 추진

안보단체장 간담회… 화살머리 고지 전사자 유해 귀환행사도

서울 중랑구 향군(회장 경화수)은 9월5일 보훈회관에서 중랑구청장, 구의회의장, 56사단장, 호국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단체장 간담회 및 6,25전사자 호국영웅 귀환행사를 개최하고 중랑구 위령탑 건립 건, 전사자 유해 전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랑구 내에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위령탑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중랑구 향군이 주관하여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에 따른 경과보고와 함께 고인에 대한 묵념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환행사를 갖고 순국선열의 위훈을 다시한번 되새겼다.

고창군 향군-경산시 향군 영 · 호남 화합행사

화합 도모 … 지역주의 갈등 극복, 선도적인 역할

전북 고창군 향군(회장 성흥제)은 9월24일, 25일 경북 경산시 향군(회장 유윤선)을 초청하여 남원 켄싱턴 리조트와 순창 강천산 일대에서 영 · 호남국민화합행사를 가졌다. 이번행사에서 양 지역 향군은 화합의 시간에 더해 호국전적지 순례를 병행, 안보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상호 지역방문 및 문화 이해,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지역주의 갈등을 극복,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성홍제 고창군 향군회장은 "양 지역 향군이 향군발전을 모색하고 영 · 호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시 향군, 6.25 참전유공자 보은

여성회, 추석 맞아 고령의 참전용사에 감사 · 경의

경북 구미시 향군 여성회는 9월4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6.25참전유공자회 구미시지회를 방문, 위국헌신에 대한 보은 활동을 가졌다.

이날 여성회원들은 이 · 미용 재능기부를 통해 아흔이 넘는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 꼭 필요한 이발과 손톱정리 등 개인위생을 도와드리고 정성껏 준비한 오찬음식과 반주, 떡과 과일 등의 음식 등을 준비해 식사 대접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준비한 답례품을 드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구미시 향군은 이날 참전용사들에게 정부의 보훈정책과 국립묘지, 호국원 등 현충시설 안장절차 등의 질의에 대해 안내하고 특히, 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해 유가족 찾기 유전자 DNA 시료채취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향군, "자유의 수호자이자 경제발전의 주역"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 향군초청 간담회

정장선 평택시장이 9월10일 평택시 향군 최영길 회장을 비롯한 주요임직원들을 초청, 안보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재향군인회의 활동사항과 시민 안보의식을 높일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영길 향군회장은 "재향군인회는 지역의 최대 안보단체로써 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지역사회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장선 평택시장은 "재향군인회는 나라가 어려운 때는 자유의 수호자로, 조국 근대화 시대에는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많은 큰 역할을 다해주셨다"고 격려하며 "시에서는 재향군인회의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아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88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 · 도 / 시 · 군 · 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강한 한의원** (경남 통영시 중앙로 311) 055-648-6655 : 20%
- **디자인치과의원**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91) 02-931-2875 : 10%
- **박일해 치과**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181) 02-433-9010 : 10~15%

식당/음료
- **거창백두관광**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54) 055-941-0102 : 10%
- **거창총포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54) 055-944-0908 : 10%
- **비스타케이호텔** (제주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10) 064-802-7000 : 인터넷판매가의 5%
- **세무법인다솔**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54) 055-945-9921 : 10%
- **현도철강**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5길 27) 055-944-4125 : 1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 · 의원/의료기기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20~30%
- **용인다보스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082번길 18) 031-8021-2114 : 10%
- **위플란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 새재2길 32-3) 054-504-7077 : 특별할인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밀리토피아호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60-1) 031-727-9300 : 10%
-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례식장** (울산시 남구 야음2동 653-3) 052-269-0119 : 10%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 **대성공업사**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69) 042-624-7771 : 10%
-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안강솥뚜껑생고기** (부산시 남구 용호로159번길 119) 051-622-4353 : 10%
- **양기순법무사**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8) 041-952-1401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청원한우마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2길 5) 043-241-8855 : 10%
- **청주한우(청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47) 043-287-1104 : 10%
- **청풍명월한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천북로 153) 043-241-6464 : 10%
- **휴대폰왕국**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80) 041-953-0009 : 20~30%

◆위기 극복의 첨병 / 광주 · 전남 향군

지자체와 유대강화, 보조금 지원 확대 … 재정자립 추진

내년 보조금 3억4천만원 확보, 전년대비 38% 증가 … 회관 리모델링 비용도

광주 전남 향군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8년 경영마인드를 갖춘 기업인 출신 나종수 회장을 조직의 수장으로 받아들였다.

나종수 회장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최일선에서 향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 군 구 사무국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인상을 단행했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주행을 택했다.

그리고 시 군 구회 최고 현안인 지자체로부터의 보조금 획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했다. 나 회장은 이를 위해 수차례 시장, 군수 등 자치단체장들을 직접 찾아 향군을 소개하고 그간 사업성과를 설명하면서 재향군인회법을 근거로 보조금을 요청했다.

재정위기 속 사무국장 월급 인상, 사기 진작
리모델링으로 임대수익 증대, 시 군 구회 지원

그 결과 2018년에는 도회를 포함해 23개 시 군 구회에서 2억1천4백15만1천원의 보조금을 획득했고 2019년에는 전년대비 약 38%이상 인상된 3억4천5백39만8천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 전남 향군은 부족하지만 도회에서 산하 각급회까지 전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무를 조기에 안정화시켰다. 임직원들 역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안보단체 향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종수 회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낳은 결과다.

최근 광주 전남 향군의 보금자리인 안보회관은 공사 먼지가 자욱하다. 1984년 준공, 노후된 회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이다. 이 역시 나종수 회장의 추진력과 무관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간 안보회관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임대료 인상은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 전남 향군은 6억3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확보, 오는 10월11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긴 시간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고대해 왔던 회원들의 숙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통해 광주 전남 향군은 전기, 배수, 구조보강 등 건물 기능을 보강, 25%의 임대수익을 늘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수익 역시 열악한 시 군 구회에 지원 할 계획이다.

광주 전남 향군은 재정자립을 위한 활동 이외도 본연의 안보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호국안보단체 향군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임직원은 물론 관내 초 중 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후계세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1년부터 평화통일기원 웅변 및 백일장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호국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안보 및 역사유적지 견학를 통해 현장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DMZ체험학습 지도 및 견학 활동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언론사와 협약을 체결, '전남평화통일 학생시민기자단 및 DMZ 평화통일 대장정'을 매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정비된 회관, 새 출발 다짐
호남제일 안보단체로 자리매김

광주 전남 향군은 10월 중순 경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된 회관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 정비된 환경 속에 호남 제일의 안보단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검정된 추진력과 리더쉽을 갖춘 나종수 회장을 필두로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광주 전남 향군은 자립형 사회단체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부조직을 챙기고 상부조직과 협력하는 시 도 향군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하고 있는 광주 전남 향군, 그리고 나종수 회장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리모델링 공사중인 광주 · 전남 안보회관

거제시 향군, 저도 해군장병 위문

경남 거제시 향군(이주연)은 저도 개방을 기념하여 입도, 군사요충지인 저도를 지키는 해군부대를 위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미 서부 향군, 푸드뱅크 행사 봉사

미 서부 향군(회장 김 재권)은 9월10일 미주 평안교회에서 열린 푸드뱅크 행사에서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향군상조회, 태왕재무설계와 MOU

재향군인회상조회가 9월3일 태왕재무설계와 상조상품 위탁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태왕재무설계의 조성철대표이사와 향군상조회 최광준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조상품 판매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군상조회는 재무플랜으로서의 상조상품의 가치를 실현하고 태왕재무설계는 판매 상품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수익 다각화에 나설 예정이다.

향군상조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및 다양한 고객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상조 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군상조회, '양쯔강 크루즈 상품' 공개

상조상품 가입자, 장례서비스를 여행상품으로 전환 허용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동남아 및 지중해 노선에 이어 중국 양쯔강을 따라 역사적인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4박 5일 크루즈 여행 상품을 선보였다.

양쯔강 크루즈 상품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이용 가능하며 출발일은 올해 가을 10월 21일, 10월29일, 11월2일, 11월5일, 11월9일, 11월12일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여행을 떠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양쯔강 크루즈 여행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역사 유적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으로 사랑하는 분들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럭셔리한 경험을 만들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동남아 3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크루즈 상품이 인기리에 마감되어 10월, 11월 출항 예정이며 2020년 3월에 출항 예정인 동남아 3개국 및 서부지중해 크루즈 일정은 현재 절찬리에 모객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향군인회상조회 홈페이지 또는 향군상조투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장례서비스를 여행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병 · 의원 우대 할인, 웨딩 패키지 서비스, 병무상담 멘토링 서비스 등 다양한 회원특전을 제공한다.

금년 7월에는 회원 전용 복지몰을 오픈하여 회원복지 향상 및 특전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8월21일 ~ 9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9월19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안산둘레길 등을 둘러보는 임직원 문화탐방행사 실시.

중구회 : 여성회는 9월2일 광희동 및 장충동 일대에서 거리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동대문구회 : 9월10일 추석을 앞두고 6.25전쟁 당시 순진하신 16지사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정화활동 전개.

서대문구회 : 9월10일 회관내 어린이 나라사랑 교육관에서 세종유치원생들을 초청, 우리나라의 5대 상징물 교육.

강서구회 : 9월9일 방화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석맞이 한사랑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불우이웃 나눔행사 실시.

강동구회 : 여성회는 9월16일 한국소리마을 복지센터에서 독거 어르신 급식 봉사활동 전개.

서초구회 : 9월9일 명선헌에서 서초구청장 초청으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송파구회 : 9월10일 추석을 맞아 지역 경로당, 독거노인 가정 등을 방문,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및 회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양천구회 : 9월9일 국군귀환용사 3명의 가정을 방문 선물 전달하고 위로.

영등포구회 : 9월18일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승전전망대, 제3땅굴 등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부산시 향군

서구 아미동회 : 9월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아 아산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백미, 떡, 과일 등을 전달하고 위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9월20일 엑스코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년 해외 파병용사 위로연 참석.

수성구회 : 9월6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회원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을 전달하고, 위로. 9월19일 경산 자인소재 농가를 방문,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

동구회 : 8월26일 동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멋진 동구와 블루시티 영덕의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개최된 자매결연식 참석. 9월9일, 10일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 어려운 가정과 북한이주여성 등 4가정을 선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전달.

중구회 : 9월17일 향군회관에서 보훈안보단체 간담회를 갖고 향군의 날 및 호국단체 화합한마당 행사 개최 논의

서구회 : 여성회는 9월5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한가위 대축제' 행사에 참여, 지역 내 독거 노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급식봉사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9월3일 영흥도에 소재한 해군 영흥도전적비에서 거행된 X-Ray 작전 전사자 추모행사 참석. 9월3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2020년도 예비군 육성지원금과 군과 시청 통합관제센터 간 CCTV 영상공유 지원에 관한 안건 심의.

남동구회 : 9월9일 동인천고 학생 80명을 초청, 강화 평화전망대, 강화 6.25 참전비 등 현충시설 탐방 행사를 갖고 나라사랑 정신함양. 9월5일 동부초등학교학생 등 80여명을 초청, 제3땅굴 및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등 분단 현장 견학, 호국정신 함양. 여성회는 9월2일 만수5동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짜장차 봉사활동 실시. 여성회는 9월17일 수산동 배밭 농가를 방문, 봉사활동 실시.

중구회 : 9월6일 영종 중산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등 안보현장견학행사 실시.

강화군회 : 청년단은 9월5일 강화군청이 주최한 강화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8월22일 강원 홍천 백우산 용소계곡에서 화합행사. 여성회는 9월3일 화성시 조암리 소재 배추밭에서 배추 모종 심기 봉사. 9월6일 보훈원을 방문하여 방청소,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원생들과 놀이 활동.

과천시회 : 여성회는 9월4일 봉사와 사랑나눔 일환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진행된 '사랑담은 송편 만들기 행사' 참가.

군포시회 : 9월6일 추석을 맞이하여 51사단 167연대 4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유대강화 활동 펼쳐.

이천시회 : 9월10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군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향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 격려.

안양시회 : 9월2일부터6일까지 백두산 및 연길지역 안보 역사유적지 답사행사를 갖고 민족의식 고취.

충청북도 향군

제천시회 : 9월2일 강원도 강릉 오죽헌과 이승복 기념관 등 강원도 일대 역사유적지를 둘러보는 임직원 안보현장견학 행사 실시.

청주시회 : 8월28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 오는 10월8일 예정된 재향군인의 날 행사 협조회의 가져. 9월10일 개신동배수지 및 그 주변장소의 쓰레기 수거 및 정화활동을 실시.

충주시회 : 여성회는 9월19일 수안보 수회리에 위치한 무궁화동산 환경정화활동 전개.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충남도회 : 여성회는 9월11일 추석을 맞이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들을 찾아 송편과 밑반찬 등을 전달.

대전 중구회 : 9월4일 파주 DMZ 안보견학을 실시, 분단 조국의 현실 재인식하고 굳건한 안보관 확립 다짐.

대전 동구회 : 9월6일 추석명절을 맞아 동구 신인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포도 25상자를 기증. 8월28일 동구청을 방문, '천사의 손길' 사랑의 성금 100만원 기탁.

전라북도 향군

전주시회 : 8월27일 임진왜란 당시 세계해전사상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었던 명량대첩 전적지인 전남 해남군 "우수영 국민관광지"를 방문, 안보의지를 다져. 안보단체협의회는 9월20일 독립운동가의 얼과 혼인 서려있는 서대문형무소 방문, 민족의식 고취.

김제시회 : 9월10일 민족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김제지역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김제대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

정읍시회 : 9월10일 자매부대 정읍대대를 방문, 장병들에게 송편 과일 음료수 등 추석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완주군회 : 여성회는 9월9일 운주아파트 경로당에서 네일아트 봉사활동 실시.

장수군회 : 9월6일 장수군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하금 전달.

군산시회 : 9월6일 수송동 일대에서 재래시장 이용을 권장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 전개. 9월2일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를 방문, 안보현장 견학 및 영호남행사 협조 요청.

진안군회 : 9월6일 추석을 맞이하여 자매부대 진안대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익산시회 : 9월5일 추석명절을 맞아 5명의 회원에게 쌀국수, 화장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여성회는 9월5일 예술문화의 거리에서 추석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제거와 버려진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 실시. 9월10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불우회원들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부안군회 : 여성회는 9월3일 농아인협회 부안군 지부 수화통역센터를 방문, 소외된 장애우들을 위한 성금 전달.

순창군회 : 9월10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활동 전개. 9월11일 순창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실시.

남원시회 : 여성회는 9월6일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주최, 추석맞이 명절 밑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 9월20일 고창읍성으로 안보현장견학 행사.

광주 전남 향군

무안군회 :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중국 상해 임시정부와 백두산을 찾아 통일안보 교육 및 호국순례 안보견학행사 실시.

영광군회 : 8월23일, 24일 홍도 흑산도에서 자원봉사자 단결활동 및 수련회 개최.

영암군회 : 8월24일 완도군 일원에서 임원 수련회를 갖고 화합 도모.

고흥군회 : 8월26일 향군회관에서 안보보훈단체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활동방안 논의.

순천시회 : 8월23일 평중리 6.25참전용사기념탑 공원에서 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9월19일 경북 도지사 주관 국민소통 간담회에 참석, 일자리 창출 등 경북발전을 위한 방안 토의. 9월17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44차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참석.

영주시회 : 9월 3일 영주대대 이재진 대대장과 영주시의회 김병기 부의장을 방문, 영주대대 시설 개선 협조 요청.

안동시회 : 여성회는 9월19일 요셉의 집에서 급식봉사활동 실시.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9월10일 고운체육관 및 함양상림공원에서 열린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D-365 기념행사 참석.

창녕군회 : 여성회는 9월9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재래시장 홍보활동 전개.

통영시회 : 9월6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8358부대 1중대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고성군회 : 8월30일 고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초청하여 해군기지사령부 및 진해해양공원일대에서 청소년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함안군회 : 8월31일 함주공원 마사토 구장에서 열린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에서 봉사활동 실시. 8월29일 자유수호전승의 터에서 제초작업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정화활동 실시.

하동군회 : 9월10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경계와 훈련, 치안 유지 등에 노고가 많은 군 장병, 의경들을 격려하기 위해 위문품 전달.

울산 남구회 : 여성회는 9월10일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환경정화활동 전개.

의령군회 : 9월5일 의령읍 재래시장에서 추석을 맞아 환경정화활동 실시. 9월3일 부림면 가례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9월18일 해군 제7기동전단 장병 40명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항 주변에서 환경정화작업 실시. 9월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 원로 자택을 방문, 후원금 100만원 전달. 8월22일 현충사업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제주충혼묘지 사업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추진 방향 토의.

제주시회 : 8월23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제주장애인요양원과 제주케어하우스를 방문하여 시설주변 제초 작업 및 산책지원, 식사보조 등 봉사활동과 함께 설렁탕 식사 지원. 8월29일 해병대 92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 전달.

서귀포시회 : 9월3일부터 5일까지 거제 포로수용소, 부산임시수도기념관 등 부산 경남 일대 전적지 순례행사를 갖고 안보의식 고취. 예래동회는 9월18일 관내 충혼비, 체육공원, 주변도로 등 풀베기 및 주변환경정비 활동 실시.

제67주년 재향군인의날을 경축합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 일동

친목단체 활동

창군 제79주년 기념행사

광복군동지회(회장 김영관)는 9월17일 백범기념관에서 한국 광복군 창군 제79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기계 안강전투 전승 기념행사

백골전우회 (회장 이장호)는 9월17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광장에서 기계 안강전투 전승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여군창설 제69주년 기념행사

재향여군연합회(회장 이재순)는 9월6일 육군회관에서 여군창설 제69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정기 이사회의

부사관총연합회(회장 나순철)는 9월5일 향군 회의실에서 9월 정기 이사회의를 가졌다.

회장단 회의

영관장교연합회(회장 박우식)는 9월4일 향군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가졌다.

운영위원회의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 김정규)는 8월28일 향군 회의실에서 하반기 운영위원 회의를 가졌다.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는 9월5일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제53회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를 거행했다.

임원 간담회

정보동우회(회장 박상수)는 9월18일 일품헌에서 임원 및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 · 타이거여단 546위 유격군, UN군 전사자 추모

8240부대유격군
을지타이거여단전우회

6 · 25전쟁 중 계급도 군번도 없이 참전하여 산화한 을지 · 타이거여단 546위 유격군과 UN장병 전사자를 추모하기 위한 '전몰유격군 추모제'가 8240부대유격군을지 · 타이거여단전우회(회장 목성균)와 특수전사령부가 주관으로 9월20일 강화군 교동면 유격군 충혼전적비에서 엄수됐다.

유격군 을지 · 타이거여단은 6 · 25전쟁 당시, 황해도 등 38도선 인근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치안대 · 청년단 · 학도호국대원들을 UN군이 지휘하며 편성되었고, 첩보활동, 양민구출, 심리교란 등 특수공작을 펼치며 활약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 순)

▲**정보동우회** : 10월2일 서울대공원에서 서리플 등산 및 자연보호운동.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 : 10월3일 인천송도 컨벤시아에서 제7회 전국 효도백상찾기 행사.

▲**영도유격부대전우회** : 10월8일 태종대 유격비에서 창립기념 및 추모제.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 : 10월11일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다부동전투구국영령 추모제.

▲**한국유격군백호부대전우회** : 10월11일 백령도 백호부대 전적비에서 유격군 백호부대 충혼제.

▲**백마고지참전전우회** : 10월12일 어린이대공원 3군신 동상에서 백마고지 3군신 추모제. 10월16일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백마고지 참전영령 추모행사.

▲**호림안보협의회** : 10월15일 서울현충원 유격부대 전적비에서 제70주기 호림특수부대전몰영령위령제.

▲**재향여군연합회** : 10월16일 대성동 마을 안보현장 견학행사.

▲**포병전우회** : 10월17일 장성 포병학교 방문행사. 10월25일 육군회관에서 제71주년 포병의날 행사.

▲**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회** : 10월18일 인천자유공원 호국기념탑에서 6.25참전회 전사자 및 작고회원 합동 추모제.

▲**헌병전우회** : 10월21일 3사단 헌병대 앞 위령비에서 6.25참전 금화지구 희생 헌우 추도식.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10월22일 이천호국원 충용탑에서 전몰전우 추모 및 충용탑 건립 42주년 기념식.

▲**공군전우회** : 10월24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사천지구 공군 충령비 추모행사.

▲**해병대전우회** : 10월26일 파주 임진각 광장에서 장단 사천지구 전투 전승행사.

▲**성우회** : 10월29일부터 4일간 JSA, 도라산,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제7차 한일 전략교류 행사.

▲**갑종장교전우회** : 10월30일 군인공제회관에서 상임운영위원회의.

▲**6.25참전유공자회** : 10월30일 철원군 월정역 앞에서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몰장병 추모제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향군장학기금

※ 기간 : 8월 24일~9월 23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경기도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 우건식 10(10)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9)
- 일반회원 ㈜대창농축 오승훈 1(39)
- 일반회원 다온중학교 교사 이미래 1(37)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36)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21)

▶ 정기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60)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50)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 금 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정보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남사당 전통문화 바우덕이의 예술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2001년부터 시작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10월2일부터 6일까지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일대에서 열린다. 안성은 조선시대 남사당의 발상지이자 총본산으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중심지였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2006년부터 유네스코 공식자문협력기구의 공식축제로 지정, 우리나라 전통을 소재로 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고 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위원회 031-678-2511~5〉

동래읍성 역사 축제

'1592년, 조선 동래를 만나다' 라는 슬로건으로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 일대에서 동래읍성 역사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동래의 전통과 문화, 숭고한 선열들의 구국정신을 중심으로 교육과 오락이 결합된 에듀테인먼트의 역사교육형 축제로써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래성 전투재현 뮤지컬 '외로운 성' 은 목숨으로 동래성을 지키고자 했던 송상현 동래부사와 동래읍성민들의 처절한 항쟁을 재조명하며 감동을 줄 것이다.

〈동래읍성역사축제추진위원회 051-550-4092〉

전주비빔밥 축제

대한민국 미식의 수도 전주를 대표하는 아이템인 전주비빔밥을 주제로 다양한 전주의 음식과 문화를 맛깔나게 버무린 대한민국 대표 음식관광축제 '전주비빔밥 축제' 가 10월9일부터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향교일대 및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열린다.

전주비빔밥은 전주의 10미 중 하나인 콩나물로 지은 밥에 오색 · 오미의 30여 가지의 은행, 잣, 밤, 호두와 계절마다 다른 신선한 야채를 넣어 만든 건강식품으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완전식품이다.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 063-231-8969〉

이태원 지구촌 축제

한국의 전통문화와 이태원의 외국 문화를 결합하고 이태원 지역의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처음 개최된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10월12일, 1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서 열린다.

다양한 볼거리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는 세계 각국의 음식전과 풍물전, 800여 참가자들의 퍼레이드, 한류의 중심을 이루는 K-POP 가수들의 콘서트, 세계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02-2199-7250〉

건강정보

알코올 사용장애, 음주 통해 스트레스 극복하려는 태도 버려야

알코올 사용장애는 중독적 물질 사용에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요인 및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고 이러한 알코올 사용이 반복되면서 뇌의 중독회로가 강화되어 형성되는 뇌의 질환이다.

증상

알코올 사용장애의 증상으로 ①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 ②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하였으나 실패 ③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냄 ④알코올에 대한 갈망 ⑤반복적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 실패 ⑥알코올 영향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 ⑦알코올 사용으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활동 및 여가를 줄임 ⑧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 알코올 사용 ⑨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알코올 사용 ⑩알코올에 대한 내성 ⑪금단증상 등이 있다.

진단 · 검사

알코올 사용 장애는 임상가와의 정신과적 면담을 통한 임상양상 평가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 알코올 사용 양상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단이 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로 평가가 되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심장, 간 등의 신체적 문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혈액검사와 심전도 등을 시행하게 되며,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관련된 내과와 협의 진료를 하게 된다.

또 알코올의 신경독성 및 전신 영양 결핍 때문에 보행이상과 손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금단 섬망이나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파나 뇌영상 검사 및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치료

알코올 사용장애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많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은 단주보다 절주를 하려고 하지만 알코올 사용장애를 치료하려면 뇌에 강화되어 있는 중독회로를 약화시키고 뇌기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단주를 하여 수개월을 유지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단주해야 한다. 단주를 시작하면 환자들은 불안 불면 자율신경계 항진 등의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정제 투약 및 신체와 뇌 회복을 위한 고농도 비타민이 함축된 수액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이러한 해독과정이 끝나면 금주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술에 대한 갈망을 줄일 수 있는 약물을 투약한다.

예방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법으로 술을 찾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사용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음주 외의 다른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알코올 사용 습관을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잘못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하여 뇌의 변화가 생긴 질환이다. 폭음을 하는 것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잘못된 음주 습관이다. 폭음에 필름이 자주 끊기는 것은 뇌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신호다.

음주를 하면서 식사를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뇌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 결핍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혼자 술을 마시는 것, 술을 마셔서 잠을 청하는 습관도 알코올 사용에 통제력 발휘를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은 중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것을 이해 하고 자신의 알코올 사용 방식에 대해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안보정세보고
동북아 정세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냉철한 현실 인식아래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북 억지력 유지해야

최근 동북아 지역에 격랑이 일고 있다. 미 · 중간 패권경쟁에 따른 중 · 러의 협력과 대응 강화, 역내에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일본,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택한 한국, 핵보유를 굳히려는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주변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희망하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에서 최근 동북아 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들을 유추해보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 요인

최근 주목할 만한 동북아 정세 변화 요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적극 전개되고 있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대미 도전은 공식화 되었고,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 이를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상당한 대중 무역 적자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수입품에 수차례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응하고 있는 중국은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경기 악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배후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계산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둘째, 한 · 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기화로 경제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는 반일감정이 거세지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8월 22일 한국 정부의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은 한일관계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 · 일관계의 악화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셋째, 최근 북 · 중 · 러간 긴밀한 연대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미 · 중관계가 악화되며 중 · 러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공군 훈련중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이러한 중 · 러의 행보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며, 미국에 대항하는 중 · 러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는 별개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유대관계 강화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북한 비핵화 과정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나 체제보장 문제에 있어 더욱 완고한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 · 중 · 러의 밀착 가능성은 북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커다란 도전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넷째, 한미동맹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미 · 중관계 악화나 중 · 러의 공세적 외교, 한 · 일관계 악화 등은 우리가 늘 목격해 왔던 일들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약화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며,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야기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의 부작용으로 한미동맹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은 돈이 많이 드는 행사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 중심적인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나 대북정책 공조에 악영향이 발생한 것이다. 겉으로는 빛 샐 틈 없이 튼튼한 동맹이 속으로는 멍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는 최악의 외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한국 외교안보의 위험 요인

군비경쟁의 격화와 강대국 강압외교의 귀환

지난 2월 1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선언으로 강대국간 군비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 개발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INF 조약을 파기한 후 중국까지도 포함된 새로운 조약을 맺고자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 결과 미국은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동아시아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군비경쟁에서 아무도 물러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러한 군비경쟁 과정에서 강대국의 강압외교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강대국간 편 가르기가 심해지며, 주변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 하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대만, 베트남 등을 포함하려 들 것이며,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시도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나라에 대해 경제제재 등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들의 선택에 따라 대미관계나 대중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보유 고착화

강대국간의 경쟁이 거세질 경우 북핵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미 · 중 · 러 모두 서로간의 사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북핵 문제는 관리 정도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이러한 정세를 적극 활용하며 핵보유를 고착화 하려고 할 것이다. 자칫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꺾지 못하고, 국내정치용 임시방편으로 일관한다면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무기 카드를 내세워 미국과 협상에 성공하여 한미동맹을 저해하고 경제제재의 해제를 얻어내는데 있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핑계로 고조시켰던 군사적 긴장을 멈추고 비핵화 실무협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동결 거래나 그 밖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한다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위기

한국의 인식과는 달리 미국이 생각하는 한 · 미 · 일 안보협력은 다목적이다. 미국은 북핵 위협의 억제 못지않게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 · 미 · 일 안보협력을 전개하고자 하며, 또한 한 · 미 · 일 자체로 끝나지 않고 호주,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동맹 및 우방국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이기주의적 행보,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그리고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적 사고로 인해 한 · 미 · 일 협력에 위기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 미 · 일 협력의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 안보협력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내부적인 갈등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한 · 일간 협력의 장애물이다. 역사문제만 빼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을 공유하는 근접한 이웃 나라로서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불편함이 양국관계와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역시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 · 미 · 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왔다.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작년 이후 우리 정부는 한 · 미 · 일 안보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 ·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로 인해 한 · 미 · 일 안보협력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핵위협이나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 높은 결속력은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복원 조짐에도 효율적인 대비책 수립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대응 방향

냉철한 현실 직시

주변국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 상황을 북한이 어떻게 활용하려 들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미래 예측으로는 다가올 도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동북아지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은 물론이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직설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중립적인 위치에 서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중국의 경제력, 심리전 등을 포함한 샤프 파워(sharp power)를 활용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존재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편이 되어줄 수 없다.

일본은 미국 편에 서며 한국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같은 편에 남아 있으면 협력을, 중간자적 입장을 보이면 과감히 고립을 유도할 것이다. 만일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외교적으로 고립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과는 역사문제와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하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 해야 한다.

북한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복원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미 · 중관계의 악화에 따라 북한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중이다.

한중관계에서는 중국의 부당한 정치적 개입에 맞서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그리고 인권 증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를 완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효율적인 대러 설득카드가 되는 만큼, 실질적 경제협력을 앞세우는 효율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북한에게는 철저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비핵화 협상은 북한에게 있어 핵보유 협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와 조기 제재 해제를 미국이 수용하면 협상을 하고, 미국이 거부하면 중 · 러의 지원을 받으며 버티기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궁극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는 현실화 될 경우 한국 외교의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이 끝내 새로운 중거리 핵전력 조약 참여를 거부할 경우, 중거리 미사일 배치 요구는 거세질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모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수용한 이후, 북핵 문제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가장 늦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경우 스스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접근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 방안 강구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당해낼 방법이 없기에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 안보의 불가결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미국의 강력한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빚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에게 단일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북한 비핵화 공조를 해야 한다.

비핵화가 어렵게 될 경우 한미 연합군사훈련 복원과 확장억제 제고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나토의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공군의 플랫폼에 장착시키는 핵공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 독자적인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핵공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한편, 미국이 강도 높게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의 경우 기존의 분담원칙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방위조약이나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은 주둔에 필요한 비용에 국한되는 것이 맞다.

대북정책, 교류협력 및 대북 억지력 유지 병행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이러한 포괄적 합의를 거부하고 끝내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면 이는 핵을 보유하기 위한 전술적 협상일 뿐이다. 따라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억제력을 강화하고 당분간 북한과의 협력 확대보다는 위기관리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북한에게 비핵화 거부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남북간의 갈등을 피하고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압박외교를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협력의 확대를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남북간 기존합의의 이행도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경우, 북측이 조속히 GP 철거 등에 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우리에게 유리한 감시정찰능력에 스스로 발목을 묶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동북아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아산정책연구원, 2019. 08. 26

※본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